

선체·항해장비 결함 등 '정보호' 사고원인 조사

선체 수색 과정 파공 보이지 않아 기관실 차오른 물·배관 누수 의심 조난신호장비 두고 전화 구조요청 위치 수·발신 시스템은 정상 작동

신안 임자도 해역에서 정보호 전복사고가 발생한지 나흘째인 7일, 경찰은 선체를 인양하는대로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사고 원인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목포해양경찰은 3차 브리핑을 통해 "사고선박 정보호는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상상태를 감안해 인양작업을 펼칠 것이다. 선내 실종자 수색 병행 및 선내 정밀수색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지휘함과 민간인양업체와 함께 수색방법, 장소 등을 협의 후 수색 실시 예정이다"며 "선체 전복 원인 조사를 위해 선체 인양 후 국과수, 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고 경위는 구조된 선원들의 '기관실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진술대로 급격하게 침수되면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침수 원인으로 기관실 파공이 언급됐지만 해경은 이에 대해 "기관실 파공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파공을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7일 목포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정보호 전복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스

추정할만한 충돌음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선체 수색 과정에서 구멍이 뚫린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파공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들은

해수흡입구(바닷물을 선내로 유입시켜 엔진 냉각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멍)와 연결된 배관의 누수를 의심하고 있다.

김광수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해수흡입구와 연결된 파이프 등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누수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건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선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닷물이 들어올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누수 상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 급격한 침수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처음에 작게 난 균열이 점점 커지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누수가 발생하면서 엔진이 있는 기관실에 물이 차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정보호의 항해장비의 결함이나 설치 여부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해경은 수색 과정에서 정보호 내에 조난신호를 발신하는 통신 장비가 탑재된 것을 발견했다.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통신기로 불리는 해당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배 윗부분에 위치한 선교(조종실)에 있다. 하지만 이번 정보호 전복 사고는 휴대전화 상으로 구조 요청이 이뤄지면서 해당 장비가 미작동 했는지 등이 미지수로 남았다. 다만 사고 상황임을 감안해 긴급하게 수중에 있는 휴대전화로 조난신호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난신호를 접수한 해경은 곧바로 정보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를 감지해 인근에 있는 민간화물선에 구조 협조를 의뢰했다. 어선법 상 항해장비 5종 중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보호는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

광산구 월계동 금은방 턴 30대 남성 긴급체포

"생활비 마련하려 범행 저질러"

손님인 척 행세하며 광주 도심 금은방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7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9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팔찌 등 8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금속을 구매한다며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착용했고, 업주가 계산을 위해 등을 보이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계산한다며 업주에게 건넨 카드는 분실신고가 된 카드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

훔친 귀금속은 이미 처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이날 오후 1시께 금은방에서 3km 떨어진 광산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가 우려되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내달 말까지 광주 5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극락초·중외공원 등 교차로

지난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으로 광주 도시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광주시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횡단보도 578곳의 차량 보조등을 철거하고 3월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교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동일

한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우회전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곳이다.

광주시는 전용차로, 신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에만 선별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또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상지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코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봄에 떠나는 그회를 성역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장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송선문의, 예약센터, 메이투어
061-834-3434,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